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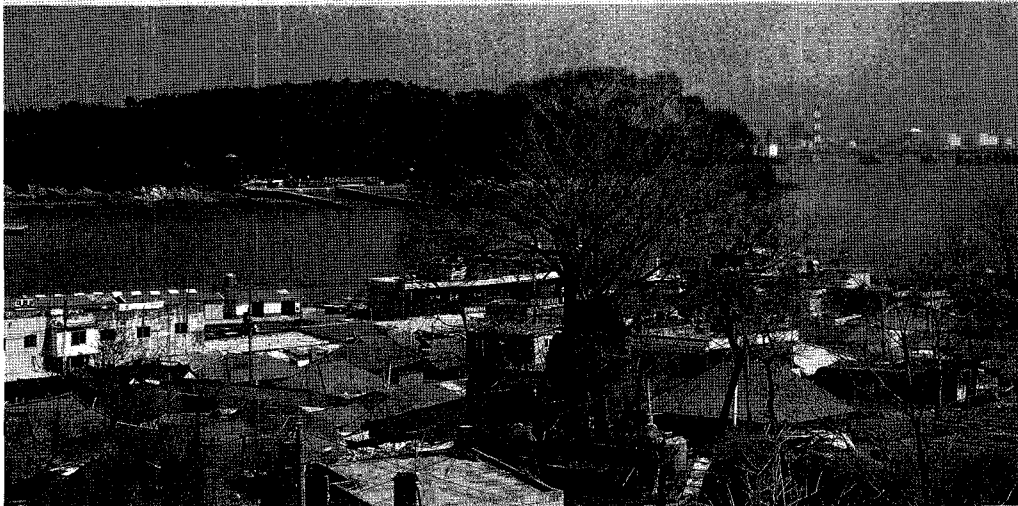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어업 발전과 ‘국민의 이해’ 달라 혼선

농어업 · 농어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정확한 정보제공 전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농어촌과 작물보호제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20~30년 전 모습을 그리거나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60~70년대만 해도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농어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70년에 50.5%이던 것이 2007년에는 7.4%로 감소하였고, 농림어업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9.2%에서 3.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숫자나 규모로만 보면, 이제 농어업은 주요 산업분야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은 오히려 농어업, 농어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쇠고기(광우병) 파동과 멜라민 파동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다. 한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계기로 녹색성장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가을부터 가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인류의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농어업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고는 하지만, 농어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존할 산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반적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색깔은 녹색(Green)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미래 주역 학생 교육,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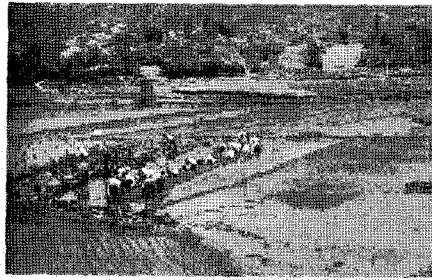
그렇지만 그동안 농어업·농어촌이 인류의 먹을거리와 삶터 그리고 쉼터를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라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서고 나머지 절반도 상당수가 농어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농어업·농어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농어업·농어촌과 직접 관련되는 사람은 적고, 농어업·농어촌과 관련이 없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농어업·농어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성세대 중에는 아직도 농어촌 출신이 많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농어업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겠지만,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워낭소리'와 같은 영화를 보며 그저 오랜만에 향수를 되살릴 뿐이다. 농어촌에서 자란 이들도 이



그림 1. 도시(서울)



농촌(전라북도 임실군)

러한데,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경우 농어업·농어촌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므로 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매체 중의 하나가 교과서이다. 교과서가 농어업·농어촌에 대하여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설명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식이 백지상태나 다른 없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의 세 가지로 나뉜다. 과거에는 국가에서만 교과서를 제작하였는데(국정), 얼마 전부터는 출판사들도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 절차를 거쳐(검·인정)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되고 검정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이 전문가들도 농어업·농어촌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도 농어업·농어촌을 20, 30년 전의 상

황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농어업 종사자·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한 예로 소로 논을 갈고 사람이 직접 모내기하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그림1). 도시와 농촌을 대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농촌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요즘은 벼 수확을 콤바인이나 트랙터로 하고 탈곡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아직도 탈곡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그림2). 물론 과거에 비해 교과서 내용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이와 같이 농어업·농어촌과 관련하여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림 2. 벼 수확을 탈곡기를 이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작물보호제인 농약과 관련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10여 년 전의 일기는 하지만 ‘농약이 묻은 농산물’이라든가, ‘농약이 묻은 ○○를 먹고 학생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요즘 사용되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생물농축’이라는 단원에서 살충제인 DDT가 강물에 녹아 물고기를 거쳐 사람에게 농축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DDT는 이미 위해성으로 인하여 1969년도에 폐지되어 국내에는 없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오류는 일차적으로 집필자나 교사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농어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대부분이 비농어촌 출신이다. 농어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학교 진학을 위해 농어촌을 떠났기 때문에 도시 출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교사들에게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농어업 · 농어촌

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농어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생산 증대를 최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비료와 농약을 많이 투입하는 농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농어업은 급변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농어업에 대한 이해는 20~30년 전에 멈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국민의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도 농어업 · 농어촌의 친환경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농어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의 농어업 · 농어촌은 ‘작지만 강한 농어업’, ‘잘사는 농어촌’이 되어 국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Y